



순창군이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총 58억 여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축산농가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순창군 축산업 강화 58억원 투자

친환경 축산농 육성·축종별 맞춤형 등 60여개... 삼락농정 실현 기대

순창군이 지역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총 58억 여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축산농가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이 투자하는 축산업 사업은 친환경 축산농 육성, 축종별 맞춤형, 축산관광 육성, 방역 및 재해지원, 축산기반 조성 분야 등 60여개 사업이다.

군은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 등 환경변화 요인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군은 우선 농업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친환경농업을 축산분야에도 적용한다. 현재 관내 축산농가 중 무항생제 축산농 인증농가는 128가구, HACCP 인증농가는 44가구, 동물복지농가는 27가구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은 인증비 지원, 무항생제 구입 지원비를 꾸준히 늘려 친환경인증 농

가를 300농가까지 육성할 계획이다.

축종별 명품화사업도 진행한다. 군이 집중육성하는 축종은 흑염소로 올해 사육두수가 1만3,700두에 이른다. 내년까지 2만두 목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축사현대화사업과 토종흑염소 종축구입, EM생균제 보급사업도 병행 지원한다. 한우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한우브랜드 연합유통기반 마련사업 등 6개사업에 4억여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젖소 착유시설체제 지원, 모돈갱신지원사업, 양봉 화분공급 지원사업 등 축종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실현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순창 명품축산물 유통 및 판매

망 구축과 6차 산업형 관광지 역할을 할 축산진흥센터가 축종별 정육판매장 및 가공작업장,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올해 6월 본격 운영될 계획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축산진흥센터는 팔덕면 구룡리 63번지 일원 신광산물유원지에 들어서 강천산과 민속마을 승마장을 연계한 관광지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순창축산경영계장은 "축산산업의 내외부 환경요인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종별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말 현재 한우 1만7,330두, 젖소 1,266두, 돼지 3만1,751두, 닭 2,500만 9,000수 등을 사육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봉황인재학당 홍보열기 '후끈'

내년 2월 개원 앞뒤

임실군의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봉황인재학당의 홍보 열기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월 임실군에 따르면 내년 2월 개원을 앞둔 봉황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 순회 설명회를 시작으로 설문조사와 교육과정 설명회, 간담회 등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군은 먼저 올해 초부터 9차례에 걸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교육설명회는 봉황인재학당 운영계획과 놓여준 학생들에게 유리한 농어촌 특별전형 제도 활용, 임실군 장학사업 등으로 이뤄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이달에는 관내 9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 설명회를 갖는다.

군은 또한 지난달부터 4월 말까지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봉황인재학당의 운영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올해 말까지 간담회도 수시로 연다. 간담회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관내 중학교장, 담당교사 등과 함께 학



사실정 및 방과후 학습과정 등을 협의한다.

군은 이외에도 봉황인재학당 운영계획과 장학사업 등을 담은 홍보 안내문을 수시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배포해 지역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봉황인재학당은 임실을 봉황로 301번지(구 농업기술센터) 일원에 들어서며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인 공립 교육원이다.

총 선발인원은 관내 중학생 150여 명이며, 우수 강사진이 국·영·수 과목의 보충학습을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민 군수는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봉황인재학당에 대한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됐다"며 "내년 2월 개원을 하기 전까지 설명회와 간담회, 안내책자 등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 교육 관계자 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봉황인재학당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송산업개발, 고창군 성송경로당에 성금 기탁

480여만원 쾌척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재외군민들의 고향사랑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하동군에 소재한 대송산업개발(주)(회장 주재민)이 1일 '군민과의 열린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성송면 사무소를 찾아 성송경로당에 성금 4,802,240원을 기탁했다.

주재민 회장은 "타지에서 기업 활동

을 하고 있지만 늘 고향을 잊지 않고 있으며 고향의 선후배와 군민들이 보여 준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위한 일이라면 내 부모, 내 형제를 돕는 마음으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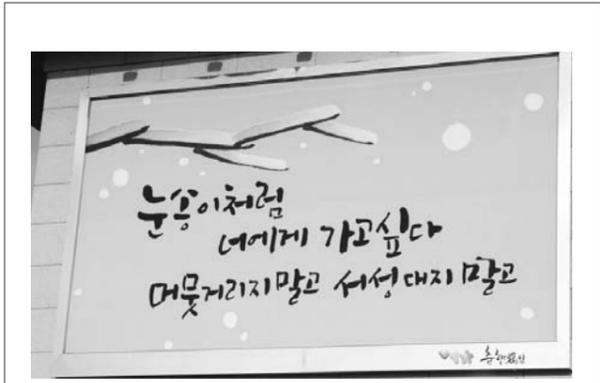
주재민 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은수매트와 성금 등 지역에 특별한 사랑을 매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

다.

또한 지난해부터 고창마을인 성송면 관정리 5,178㎡ 부지에 10세대의 귀농인들이 농촌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농마을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멀리에서도 늘 관심을 갖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주는 재외군민들이 있어 고창군민들이 더욱 힘이 난다"며 "재외군민과 군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끼는 고창군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춘향애인 글판' 문안 공모전 실시

21일까지... 연령·거주지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

남원시에서는 시민에게 힘찬 도전과 용기, 따뜻한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2017년 '춘향애인 글판' 문안을 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

'춘향애인 글판'은 2014년 4월 이후 남원시청 민원봉사실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으로,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과의 감성적 소통 창구로 이용되어 왔다.

공모 대상은 연령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남원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문안 내용은 모든 세대에게 따뜻한 위안과 새로운 희망을 주거나 계절성과 지역성을 잘 드러내는 글귀로 한글 20자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응모를 원하는 자는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글판 담당자 이메일(aeh007@korea.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문안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모 결과는 이달 28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선정된 시민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선정된 작품으로는 ▲새싹이 돋으니 빗장이 풀리고 꽃내음 퍼지니 마음이 열리네, ▲시원한 지리산 계속 물소리에 내 마음은 당신안에 있네, ▲덕음산 숲바람이 오곡백과 물들이니 익어가는 너를 따라 내마음도 풍년이네!, ▲타인에게 손을 내밀면 이웃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 가족이 된다 등이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페이퍼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글판 담당자 이메일(aeh007@korea.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문안은 남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공모 결과는 이달 28일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선정된 시민에게는 3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 선정된 작품으로는 ▲새싹이 돋으니 빗장이 풀리고 꽃내음 퍼지니 마음이 열리네, ▲시원한 지리산 계속 물소리에 내 마음은 당신안에 있네, ▲덕음산 숲바람이 오곡백과 물들이니 익어가는 너를 따라 내마음도 풍년이네!, ▲타인에게 손을 내밀면 이웃 이웃에게 손을 내밀면 가족이 된다 등이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실시

19일까지 읍면 주민 대상

임실군이 맞춤형 주민건강과 진료서비스 제공을 최우선하는 찾아가는 의료 행정을 펼친다.

군은 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임실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은 거동이 불편하고, 원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시행 중인 의료서비스로 '우리동네 일일병원' 형태로 운영된다.

검진대상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 흡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사무직 근로자이며, 격년제로 진행된다.

1차 검진항목은 기초검사, 구강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다.

1차 검진결과 의심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환자로 판정될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은 특히 이동건강검진과 함께 위암과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국가암 검진도 병행 추진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와 전주 열린병원과의 협진으로 진행되는 이번 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그 대상이다. 단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이다.

국가암 검진을 통해 발견된 신규 암환자는 암치료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국가암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보건의료원측 설명이다.

검진대상자는 전날 10시부터 금식하고 신분증을 준비하여 검진장소로 가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선진 장사문화 정착 읍·면 평가 최우수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경지 등에 임의로 설치된 유·무연고 분묘를 정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영농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전다짐의 날'에서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시상했다.

'선진 장사문화 정착 우수 읍·면 평가' 결과 무장면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1,5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받았으며 대신면이 우수상에 선정돼 시상

금 1,000만원을, 고창읍과 성내면이 장려상으로 각각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7년 정비대상 유·무연고분묘 조사 상황과 유·무연고분묘정비실적, 화장장려금 지원실적, 장사문화 관련 교육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시상금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정신장애우사회복지시설미련

임실군 정신장애우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됐다.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사업보조로 연면적 305㎡의 2층 생활동을 증축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증축하게 된 공간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통해 생활동을 확장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크게 확보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기존의 생활동 조립주택이 지반침하로 인해 건축물 기울임이 심한 점을 보완해 취약한 안전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과 다르게 가정집과 같은 공간으로 건축돼 임실지역 정신장애우들에게 보다 나은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재활교육을 물론 독립적이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동행에는 입소자 20명과 이용자 30명 등 총 5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경찰, 노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1일 남원시 왕정동 소재 남성정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에는 남원시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 사례를 활용하여 아간에 도로 보행시 밝은 옷 입기, 음주운전 근절, 결빙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및 경운기 사용 지양하기 등 평소 간과하기 쉬운 안전부분에 대하여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길 계장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는 작은 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교통사고예방에 대해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빙판길 제거작업 실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순찰활동과 병행하여 빙판길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해 도로 곳곳에 블랙아이스가 생기면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홍보하고 관내 곳곳의 빙판길 제거를 실시하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낮동안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밤 사이에 다시 얼면서 생기는 검은색 얼음으로 수분이 도로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임 효과가 발생하여 운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차량이 미끄러지게 되어 사고발생이 높아진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빙판길에서는 안전사고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안전예방활동과 함께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